



아라페시 현상을 아십니까?

오재호/한국부부문화연구원장, KBS-2R “밤을 잊은 그대에게” MC

“이 여자가 저를 얼마나 꿀탕을 먹였는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증인도 있습니다. 증인이 한두 명이 라면 말도 안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만 해도 여섯 명이나 나왔습니다.”

이혼법정에 증인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는 마당인데 무엇 때문에 남의 제사 상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전혀 양상이 달랐습니다.

무려 여섯 명이 출석했습니다.

“네, 저도 몇 차례 봤습니다. 이 양반

이 집엘 못들어가고 우리 가게에서 날밤을 새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야 부인이 문을 안열어 준다는데 어쩔 니까? 허허허”

여섯 분의 증언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밤 12시경에 나타나서 집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대문 밖에서 밤을 새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뜸 이혼 사유가 없다고 돌려보냈습니다. 대신 신경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강제명령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을 비교적 자주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싸운 사실을 두고 날날이 이웃 사람들에게 소문(?)을 냅니다.

그때마다 자신은 늘 희생양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집안이 견뎌온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의 희생 때문이라는 결론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의 이런 현상에 젖어 삽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가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살고 있는 ‘아라페시’ 족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아라페시족의 사람들은 손가락이 다치면 약을 바르지 않고 온 부족에게 손가락을 다쳤다는 사실을 울며불며 공개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온갖 말로 그를 위로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합니다.

즉 한 사람의 피해감정을 공개적으로 집단에게 표시하면 그 집단도 피해감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정신적 공감대를 일으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타인의 피해를 동정이라는 감정수단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동질화하면서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불행으로 여기고 스스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길 즐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쉽게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아라페시’ 현상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남의 불행에 대해 피해공감대가 넓고, 매우 민감하고, 다분히 수동적이라는 뜻입니다.

제발 부부싸움은 두 사람의 문제이니 두 사람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정히 제3자의 해결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동네방네 소문 좀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 어느 한쪽 이야기만 듣고 왈가왈부하지 마시기 바라구요.

